

Ⅰ 발간사 Ⅰ

각종 교육이나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산업간호사회이길...



강효전

울산지회장 / SK케미칼(주)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은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중간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와 함께 울산 지회장을 맡게 된지도 벌써 6개월이 흘러버렸네요.

그동안 산업보건계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 참석, 월례교육을 계획하고 무사히 마치기 까지 협회 활성화와 유대강화, 정보공유를 위해 만든 홈페이지(카페)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아쉬움.. 처음엔 과부하가 걸리는 듯했지만, 어느새 제 일 인양 익숙해져 있습니다.

연초부터 한국타이어 사태로 사업장 보건관리가 노동계 이슈로 부각되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원 근무형태조사를 위해 회원들과 통화하던 중 비정규직 문제로 어느 때 보다 회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실감했지만, 반면에 유소견자 관리나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 등 사원 개개인에게 적합한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밀착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보건소나 산업안전공단과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근로자의 건강유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등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업무

를 추진하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는 반면, 지회장이 된 후 회원들의 협회 일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 참여의식 등을 바라볼 때,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교육이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회원들의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면서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 되어진 알찬 월례교육을 통해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보다 나은 지회 발전과 회원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내용 등의 좋은 안건들을 주고 받음으로써 협회의 힘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힘을 하나로 뭉쳐서 결집력을 길러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근로자 개개인과 친밀성과 유대관계가 확실히 형성된다면 각 사업장에서도 인정받고 나아가 우리 입지는 물론 고용불안 문제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 근로자 건강관리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막중한 책임을 다해나갈 때 산업간호사로서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사원들로부터 사랑 받고 인정받는 간호사가 될 줄 믿습니다.

본회에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고용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대정부 노력,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업무 매뉴얼화 등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김순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회원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한국산업간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